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뽕나무에서 돈나무가 되기까지

최근 부쩍 주변 사람들에게 식물 재배 방법과 식물 장소를 추천해 달라는 문의를 자주 받는다. 그만큼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퇴근길 꽃 가게에서 꽃을 사고, 화분 농을 장식장과 식물 조명을 구입할 정도로 식물을 가까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전체 화훼 소비량의 80% 이상은 축하·행사용 꽃 소비가 차지한다.

결혼식이나 입학식, 졸업식과 같은 행사와 어버이 날, 스승의 날과 같은 기념일 그리고 개업식, 집들이 선물을 위해 우리는 식물을 산다.

나의 부모님은 평소 내가 원예학도인 것을 잊은 듯하면서도 지인의 개업식이나 집들이를 위해 화분 선물할 때에 꼭 내게 "너 원예학과니까 화분 좀 주문해봐"라고 하신다. 그러면 나는 핸드폰으로 주변 화훼 농장과 상점을 검색하고, 선물하기 알맞은 크기의 식물종을 적당한 가격에 주문할 뿐이다.

개업 축하와 집들이용 선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물은 관엽식물이다. 간편해서 관리가 쉽고 잘 죽지 않아서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는 고무나무나 산세베리아, 드라세나 그리고 야자나무류가 대표적이다.

물론 이보다 더 특별한 식물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아름답고 재배가 쉬운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식물말이다. 선물 받은 이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행운목, 행복을 의미하는 행복나무 그리고 부를 불러들인다는 금전수... 재작년 방영한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금전수 화분이 등장한 후로 우리나라에서 금전수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식물의 형태와 재배 방법이 어떨든 이들에 담긴 '부'의 의미에 소비자는 쉽게 현혹된다.

금전수는 자오미쿨라스 자미폴리아라는 학명의 식물이다. 속명 자오미쿨라스는 소철속을 가리키는 자미오, 토란속을 가리키는 폴라스의 합성어로 잎 형태가 이들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금전수는 아프리카 동남부 사막 외산의 다육식물이자 관엽식물이기에 잎에 수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어 두껍고 광택이 있다. 다만 동전과 같은 동그란 잎이 가지에 매달린 모습이 돈이 줄줄이 달린 모습과 같다고 해 우리나라에서 금전수, 돈나무라는 유행명으로도 소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실 돈나무라는 이름의 식물은 따로 있다.

10여 년 전 전북 부안의 바닷가에서 다섯 개의 흰 꽃잎을 가지에 가득 매단 나무를 본 적이 있다. 수도권에서 쪽지라도 나는 당시 남쪽의 식물이 낯설었다. 함께 간 교수님께 식물 이름을 물으니 돈나무라고 했다. 이 돈나무와 시장에서 금전수라고 유통되는 것은 전혀 다른 식물이다.

오래 전 돈나무의 뿌리에서 뽕 뽕새가 나고, 열매에 뽕파리가 자주 깎는다는 이유로 이름을 뽕나무라 불렀다. 돈나무의 원래 이름은 뽕나무였다. 시간이 흐르며

발음상 '뽕'이 '돈'으로 전파되어 어느 순간 이름이 돈나무가 되었고, 더 나아가 잎이 난 모습이 돈다발과 같아며 최근 화훼시장에서는 금전수와 더불어 이 진짜 돈나무도 부를 의미하는 식물로 유통되고 있다.

'뽕'과 '돈'의 거리감이 상당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발음상 식물명이 변화한 흐름은 부자연스러울 게 없다. 그저 뽕 뽕새가 나고 뽕파리가 자주 끼어 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식물이 도시 안에 들어와 부를 가져다 주는 식물로 통하게 된 결말은 인간의 허무맹랑한 욕망을 잘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처음 본 돈나무는 누군가에 의해 심어진 개체였지만,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 지역과 제주도에서 돈나무는 자생한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한창 노란 열매 꼬투리를 열어 안에 있는 새빨간 씨앗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

인류는 자연을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늘 의미를 담아 왔다. 약용식물을 연구하던 16세기에는 인류에게 처음 발견된 미지의 식물을 불사초라 여겼으며, 빅토리아 시대에는 식물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아 꽃말을 전파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많은 식물에게 '돈'과 관련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금전수, 돈나무 그리고 머니 트리라고 불리는 파키라... 이들이 담고 있는 것은 실상 돈과 무 그 자체가 아니라 돈에 집착하는 2020년대 한국,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눈꺼풀 떨림



김정용 보리안과병원 원장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일상의 활동들이 코로나 감염의 확산으로 인해 제약을 받으면서, 작게는 개인의 삶에서부터 크게는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정보 획득은 물론이고 업무 추진과 교육, 회의 등 많은 일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대면 접촉을 위한 시간적·공간적 소비는 줄어든 반면 일상의 온라인 의존도는 커졌다. 제한된 공간에서 올바른 자세의 유지가 힘들어지고 눈의 피로감, 스트레스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더불어 증가되는 눈의 불편한 현상 중 하나가 눈꺼풀 떨림이다.

눈꺼풀 떨림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운동 시 갑작스럽게 다리 근육에 쥐가 나는 것처럼 눈꺼풀의 일부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대부분 일시적으로 또는 가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미세한 떨림 증상이다. 주로 한쪽 아래 눈꺼풀에 나타나고, 의학적 용어로 안면근 미동 혹은 안면근 파동이라

부르며 이러한 떨림은 보통 수일 내 사라지지만 일부에서는 수 초에서 수 시간 동안 지속되는 떨림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증상이 소실되기까지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오염된 환경에서 장시간 눈을 사용하거나 눈 화장,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 땀·면지·바람 등 눈에 자극을 주는 요인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수면 부족, 체력 감소, 스트레스, 흡연, 눈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질환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고, 이러한 원인들이 정상적인 눈 환경을 변화시켜 건조증, 염증, 조절 장애, 안정 피로 등의 눈 질환을 동반하면서 발생한다.

요즘 마그네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눈꺼풀이 떨리면 마그네슘 섭취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눈꺼풀 떨림으로 외래에 오는 환자들은 마그네슘을 먹었는데도 떨림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마그네슘이 마치 눈꺼풀 떨림의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현실인 듯하다. 마그네슘 섭취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어 치료의 한 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눈꺼풀 떨림의 원인으로 마그네슘 결핍은 극히 일부이며 평소 식사로 자주 거르거나 편식, 패스트푸드 등 간편식 위주의 식습관이라면 마그네슘을 포함한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눈꺼풀 떨림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외래에서 접하는 국소적이고 일시적인 눈꺼풀 떨림은 대부분 눈을 혹사하는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마그네슘 부족으로 단정 짓기 힘들다.

치료는 원인 인자 제거, 근육 이완제, 보툴리눔 주사법, 수술적 방법들이 시도되고, 그 효과와 만족도는 다

양하게 나타난다. 치료하지 않아도 생활에 큰 불편함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인자 제거가 제일 중요하며, 여기에 더불어 약물 치료를 동반하면 대부분 호전된다. 이러한 치료법들 중 보툴리눔 주사법은 간단하면서도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사 후 일시적으로 부종, 근육 마비로 인한 어색한 표정, 눈이 덜 감겨 실눈이 떠지거나 눈물 흘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안면근 미동은 유사 질환인 본태성 안검경련증, 반측안면 경련증, 안면신경마비 후 후유증과 감별하여야 한다. 본태성 안검경련증은 양쪽 눈꺼풀 주위 및 안면 부근 근육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하게 수축해 눈을 뜨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져 온전·독사·걷기 등의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수면 중에는 경련이 나타나지 않지만,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보툴리눔 주사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된다.

반측 안면경련증은 한쪽 눈꺼풀 및 안면 근육이 간헐적으로 수축이 일어나 본인의 의지와 조절되지 않고, 수면 중에도 경련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안면신경마비는 건강안이나 각막염, 눈물 흘림, 눈꺼풀 위치 이상 등의 안과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마비된 신경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회복되면서, 웃거나 얼굴에 표정을 짓거나 음식을 씹을 때 안면마비 발생 부위의 눈꺼풀이 감기거나 얼굴 근육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발생한다. 지속되면 얼굴의 비대칭이 발생하기도 하며, 보툴리눔 주사로 얼굴 근육의 비대칭을 예방하고, 수축을 완화시킨다.

기고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주는 여운



이종섭 소설가

어젯밤에 읽다 만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마치고 지하철 안에서 눈을 감고 쉼 수가 있었다. 오후부터는 다른 책을 읽을 수 있을 건데 하는 마음이 계속 요동쳤다.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지리산의 짙은 여름 색 페이지를 한 채 나를 보고 있었다.

소설은 빨치산인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시대를 사는 딸의 시점으로 쓰였다. 조문객을 맞으면서 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반추하며 서서히 한 사내의 삶을 이해한다는 내용이였다. 딸의 생각과 시선이 조금 발칙했다. 문장은 상큼, 발랄했다. 소설은 첫 페이지부터 '아버지가 죽었다. 전방대에 머리를 박고.'로 시작했다. 문장의 가독성이 좋았다. 게다가 사투리를 대화 아닌 지문에다 그대로 쓴 부분이 몇 군데 보였다. 이래도 되나? 의문이 들었지만 읽는 데 걸림이 없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어젯밤 내내 읽다 자기를 반복했다. 몇 장 남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졌다.

소설 뒷부분이 계속 어른겨졌지만 다시 여행 가방에 집중했다. 얼른 네이버의 두 번째 해결 방법을 읽었다. '여행 가방 비밀번호가 바뀌는 경우'가 눈에 들어왔다. 여행 중에 비밀번호가 스스로 바뀌는데 그 번호를 찾는 방법이었다. 쉽게 말해 눈을 감고 번호를 천천히 돌리면 바뀐 번호에서 색다른 느낌이 온다는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도둑들이 자주 사용하는 장면이었다. 별수 없었다. 마지막 번호를 눈을 감고 천천히 돌렸다. 투 투 투.....

다. 애써 손끝과 머리에 집중된 감각이 강그리 날아가 버렸다. 아내는 꼭 중요한 순간에 뒤통을 놓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식사보다 여행 가방의 잠금 장치를 푸는 것이 더 급했다. 다시 손끝과 머리에 신경을 집중해 번호를 돌렸다. 뚱가 툭 걸렸다. 얼른 눈을 뜨고 보니 원래 3이었던 자리에 숫자 5가 웃고 있었다. 푸시(PUSH) 잠치를 오른쪽으로 밀자 잠금 장치가 열렸다. 얼른 아내를 불러 성공을 알렸다. 세 번째 방법은 열쇠를 절단하는 것이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아 다행이었다.

시간은 여덟 시 이십 분. 출근하려면 최소한 삼십 분에는 집을 나서야 했다. 식사를 재촉하는 아내 말을 무시하고 세수를 먼저 했다. 오 분 남았다. 얼른 읽다 만 소설책을 집어 들었다. 다섯 페이지까지 훑었다. 남은 부분은 빨치산이 산을 타듯 파바바 읽고 맨 뒷장 작가의 밑까지 다 마쳤을 때 정확히 여덟 시 삼십 분이였다. 얼른 가방에 다음 읽을 책을 넣고 거실로 나왔다. 아내에게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괜찮다며 읽어 보라 건넸다. 아내는 들고 있던 손가락을 놓고 책을 받았다. "당신을 만나 좋은 소설 하나는 겹나게 많이 읽네." 아내와 나는 마주 보며 싱긋, 웃었다.

소설을 읽던 중에 잠깐 눈물이 맺힌 부분이 있었다. 그때 작가 약력을 들춰 보았다. 나와 비슷한 연배였다. 이 작가의 첫 번째 책이 너무 강렬해 익히 알고 있었다. 미처 나이는 몰랐다. 앞으로 소설에만 전념한다면 한국 소설사에 굵직한 이름을 남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社說

광주전남연구원 분리보다 역량·효율 제고를

광주·전남 지역 발전의 '싱크 탱크'(think tank)인 광주전남연구원을 다시 분리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21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문화·지리적 여건 등 생활환경이 다른 양 시도가 광주전남연구원을 계속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연구원 분리의 공론화를 주장했다. 다른 전남도의원들도 연구원이 광주·전남 공동 현안 과제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분리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전남도의회가 처음은 아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날 광주시의회 답변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을 상생 차원에서 통합 운영해 왔는데 과연 방향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처음 개원한 이후 1995년 연구 기능 일원화 취지에 따라 광주전남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꿔 통합했다. 하지만 2007년 도시와

농촌의 행정과 연구 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다. 이후 민선 6기인 2015년 광주·전남 상생 1호 과제로 다시 통합해 시도의 정책·융역·차체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연구원이 나누어 있던 시절 양측이 각각의 지역만을 대변한 연구 성과를 내놓으면서 공동 현안에 대해 갈등만 부추겼던 전철을 되짚어 봐야 한다. 특히 현재 연구원이 안고 있는 한계는 광주·전남도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출연금이 적고, 연구 인력도 부족해 위상마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원을 다시 쪼개 운영할 경우 광주·전남도의 단순 융역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시도는 광주전남연구원이 지역 미래와 직결되는 연구 기능을 총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먼저다.

강제 징집·녹화 사업 피해 주민가 책임져야

군사정권 시절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 프락치(정보망원) 역할을 한 피해자들이 정부 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어제 '대학생 강제 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1970~80년대 공권력이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전향시킨 후 프락치로 활용한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인 1971년부터 노태우 정권 초기인 1989년까지 '녹화사업'이나 '선도 입부' 등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진실화해위는 조사과정에서 2921명의 강제 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관련자 명단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학생들은 140여 명이 포함됐다. 전남대가 91명으로 지방대학 가운데 가장 많았고 조선대, 목포대생들도 있었다. 특히 전국에서 유

일하게 광주이고, 목포 문태고 등 고등학교 피해자들도 있어 강제 징집과 녹화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높다. 군사정권은 시위 전력이 있는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한 뒤 사상 교육을 통해 프락치 임무를 맡겨 학원·종교·노동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구금 및 고문과 협박, 회유를 일삼았다.

공작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더욱 정교해지고 폭압적으로 발전했는데 광주·전남에선 고교 때부터 학생들의 동향을 관찰한 후 졸업하면 곧바로 강제 징집하는 일괄함을 보였다. 군사정권은 피해자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친구와 동료, 선후배를 배반하도록 강요했다. 국가 권력이 저지른 맹백한 반인륜적 행위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진실화해위가 권고한 것처럼 국방부 차원의 조사 기구 설치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프랑스 문학의 거장인 귀스타브 플로베르(Gustave Flaubert)의 1857년작 '마담 보봐리'에서 보봐리의 이름이 엠마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별로 없다. 사실주의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 소설은 엠마가 환상을 좇아 결혼을 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자 자유를 찾아 두 명의 남성과 애정 행각에 나서는 이야기다.

이 소설은 세밀하고 섬세한 사실적인 묘사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그 뒤에 플로베르는 '몽기문란죄'로 기소돼 한 법정 공방은 판사가 그의 손을 들어 주며 일단락 뒀는데, 플로베르의 승소

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짓이나 과장·축소된 것을 사실로, 실제로 그렇다고 오인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 윤 대통령 본인이 국민 소통을 위해 언론과 자주 만나는 방법으로 시작한 뒤 여러 논란에도 고집스럽게 지속해 왔으나 돌연 그만둔 것이다. 이유는 자신의 미국 방문 당시 발언을 보도한 MBC의 청와대 출입기자가 답변을 마치고 돌아서는 자신에게 큰 소리로 질문을 했다는 이유다. '가짜 뉴스' '악의적' 등의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대통령에게 그 근거를 요구하는 MBC 기자들의 항의는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를 두고 여당은 '난동(亂動)'이라고, 대통령실은 '불미(不美)스러운 사태'라고 규정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단어는 그 상황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일부러 해당 기사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고 왜곡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고 권력 기관인 대통령실과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